이렇게 생각한다

작약재배 현황과 대책

재배기피 계속되면 수입의존 불가피

기술교육 수급조절 계도기관 절실

작약은 제약원료, 수출, 한의원, 한약방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빼놓을 수 없는 약재이다. 품질에서도 중국, 북한 등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준치에 가장 적합하다는 일본 후생성의 성분검사 근거를 토대로 일본 등 외국에 우리나라 작약의 많은 양을 수출해 왔으며 국내 모 제약회사에서 중국산 작약을 가져다 성분검사를 해본 결과, 한국산의 품질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데이터도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작약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생산농가들이 3년이상 재배한 것을 1년생 다른 약초로 재배할 경우 들여올 수 없도록 본협회가 건의하여 제도적 장치를 했지만 과거에 그런 예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약의 재배는 대폭 줄어들었고, 생산량도 93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작약생산량 감소의 또다른 원인을 꼽는다면 유난했던 가뭄을 들 수 있다. 가격은 93년에 6백g당 1천6백~2천원 판매되던 것이 현재는 절단품중 상품이 2천5백~3천원 특상품이 3천5백~4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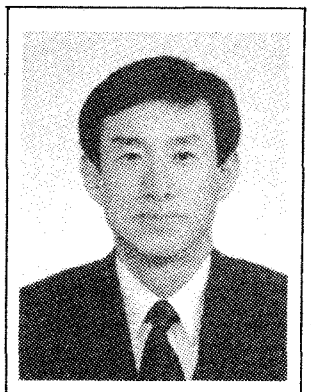
올해의 수확량으로도 내년 생산 시기까지의 수요는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95년도 가을에 생산 예정량은 94년 생산 예정량의 20%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농가들은 1년생 황기, 당귀, 천궁, 산약 등의 가격이 4~5천원인데 비하여 3년 이상 재배할 당시의 비싼 가격만 믿고 너도 나도 재배하다보면 자연 과잉생산 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재배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초래하였고, 생산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재배를 기피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약초도 그렇지만 또 약간의 과잉 생산이 되었을 때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인 수매를 해줘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결국 생산 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재배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절대적이다.

작약의 수출품은 피작약이거나 작약미가 주로 많은데 가공 과정에서 너무 고열로 건조한 탓에 성분함량의 미달로 외국에서 국내산 작약의 수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종용 회장

년도별 작약생산 소요량 및 가격동향

<단위 : %, 가격 : 원(근당)>

	'90	'91	'92	'93
생산량	3,360	3,258	5,808	5,572
소요량	2,000	2,100	2,300	2,300
수출량	195	469	131	35
가 격	4,100	3,300	3,300	2,800

	'83	'84	'85	'87	'88	'89
생산량	556	546	736	1,948	2,562	3,410
가 격	2,400	2,500	3,200	3,200	3,700	4,600

셋째, 밀수 또는 수출용 원자재 시중 유출로 인한 수입작약의 국내 반입도 예상 할 수 있다. 지금은 수출용 원자재를 한약재의 경우 들여올 수 없도록 본협회가 건의하여 제도적 장치를 했지만 과거에 그런 예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약의 재배는 대폭 줄어들었고, 생산량도 93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작약생산량 감소의 또다른 원인을 꼽는다면 유난했던 가뭄을 들 수 있다. 가격은 93년에 6백g당 1천6백~2천원 판매되던 것이 현재는 절단품중 상품이 2천5백~3천원 특상품이 3천5백~4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올해의 수확량으로도 내년 생산 시기까지의 수요는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95년도 가을에 생산 예정량은 94년 생산 예정량의 20%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농가들은 1년생 황기, 당귀, 천궁, 산약 등의 가격이 4~5천원인데 비하여 3년 이상 재배할 당시의 비싼 가격만 믿고 너도 나도 재배하다보면 자연 과잉생산 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재배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절대적이다.

또 약간의 과잉 생산이 되었을 때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인 수매를 해줘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결국 생산 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재배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작약의 고품질화로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재배 또는 가공 과정에 대한 기술교육도 필수적이다.

작약의 현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1년 후부터 생산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가격은 앙등하여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결론까지 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작약재배의 적기는 지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지금 부터 재배에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가격은 보장 받으리라는 생각에서다.

다만 과잉 생산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약협회와 사전에 재배 계획을 의논하여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도 생약재배가 수급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수립하고 생약의 전문 생산자 단체인 생약협회 등에 재배 및 수매에 대한 계획을 위임함으로써 생산자가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작약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재배에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가격동향

국내산 생약재 가격이 햇것이 출하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여름 유난했던 가뭄피해로 흉작이 예상됨에 따라 가격이 오를때 까지 물건을 출하하지 않고 있는 농민, 중간상인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국 생약재 시장의 도매시세를 살펴보면, 작약(절단품)의 경우 보통품이 2천5백원 상품이 3천5백원, 방풍(절단품)이 1천5백원, 당귀가 5천5백원, 택사가 2천7백원, 구기자 7천5백원, 향부자 2천5백원, 맥문동 3천5백원, 황기 7천원, 식산약 7천원, 천궁 7천3백원, 산수유 5천원, 황금 7천원, 치자 8천원, 지모 2천5백원, 강활 6천원 등이며 그동안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어 재배기피 품목이던 작약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구기자 청양군 사무소장 조병섭씨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고물량이 남아돌아 6천원~6천5백원 수준이던 구기자의 현재 산지가는 7천5백원선. 70%정도 생산된 상태이며 오는 11월 중순경까지 햇것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양군 조병섭 사무소장 제공〉

산약 종전 1만4천원 하던 산약이 현재 상품 8천5백원 보통품이 8천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10월 초부터 햇 산약이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물량이 많아진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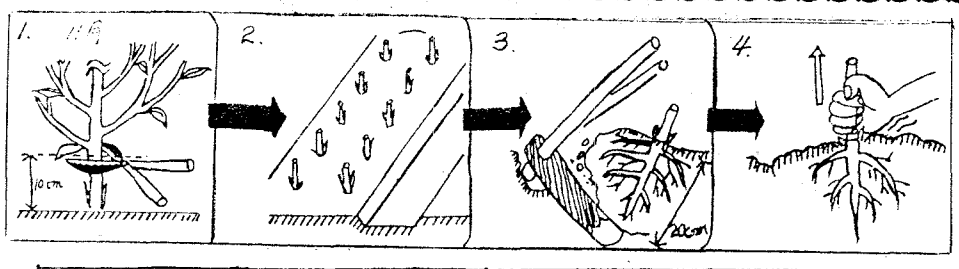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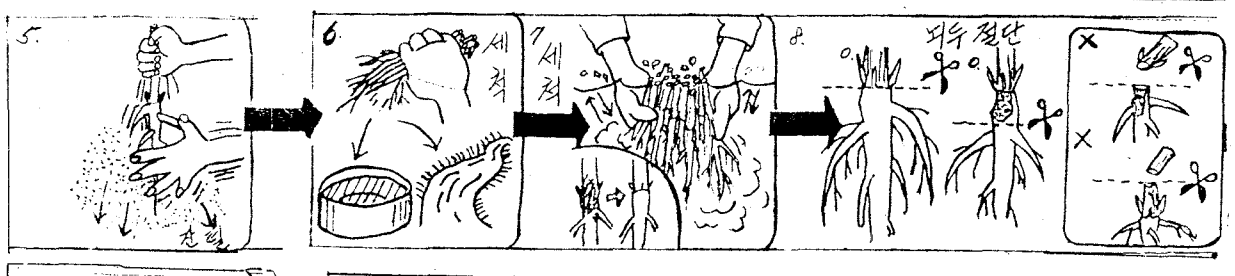
〈안동군 권응하 사무소장 제공〉

천궁 대폭 오름세. 과잉생산으로 인해 3천원~3천5백원까지 떨어졌던 천궁이 올 여름 한해로 인해 예년 생산량의 20%에도 못미치는 흉작으로 산지가는 7천3백원~7천5백원선으로 껑충 오름세. 이 가격선은 당분간 유지할 듯.

〈울릉군 배석태 사무소장 제공〉

제기동 소재 신진약업 이의섭씨에 따르면 가격이 많이 상승한 한약재의 재고가 아직 많은것으로 추정되며 11월~12월 사이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전망.

본 협회 중앙공판장에서 산지 생산자 및 공판장장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생산시기의 가격 상승은 외견상 생산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내년도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생산농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재배품종을 선택하기에 앞서 비싼 생약재는 본 협회 또는 지방 사무소장들과 충분히 의논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삼도시호 수확요령

1、11월 이후 먼저 지상부를 10㎝정도 남기고 잘라 줍니다. 2、절취한 뒤의 모양를 뽑는다. 3、굴취 모양 4、주 5、흙과 잔털을 될 수 있는대로 털어준다. 6、7、세척 모습 8、줄기 및 병해 부분 절취(×표는 절취 불량 모양) 9、줄기 및 병해 부분 절취 후의 모양 10、햇및 건조으로 된 건조대가 제일 좋다. 11、1일 건조후 잔털 제거 12、뿌리를 편 모양 13、15-20일간 다시 건조한다. 14、완성. 뿌리의 굵은 부분이 똑뿌러지는 상태가 좋다.